

윷놀이

윷놀이 대회가 시작됐다. 전날 윷놀이 경기장을 설치했다. 윷놀이 판과 말판을 운동장에 일정간격을 두고 4명이 윷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정돈했다.

읍면동별 윷놀이 참가선수는 소흘읍 11명, 내촌면 4명, 가산면 6명, 신북면 4명, 창수면 20명, 영중면 10명, 일동면 2명, 이동면 0명, 영북면 12명, 관인면 12명, 화현면 6명, 포천동 6명, 선단동 17명 등 모두 116명이 참가했다.

윷놀이 경기는 모두 64개조로 구성되어 32강전부터 시작했다.

32강전에서 이긴팀은 16강전, 8강전을 거쳐 4강전, 준결승전, 결승전을 통해 승자를 가렸다.

윷놀이 경기 1위는 관인면, 2위는 영중면, 3위는 가산면, 우정상은 관인면, 응원상은 창수면, 모범상은 창수면이 각각 차지했다.

윷놀이 경기진행방법

-말과 말판, 윷, 윷판을 준비한다(주최측에서 준비함).

-경기시작 전에 양 팀의 대표가 윷가락을 한 번씩 던져 나온 끝 수가 큰(모, 윷, 걸, 개, 도 순) 팀부터 경기를 시작한다.

-말은 양 팀이 석 동씩 가지고 사용하며 정해진 순 후에 따라 시작한다.

-윷가락 네 개를 나란히 세워 잡고, 사람의 앉은키보다 약간 더 올라가게 던진다.

-윷가락을 던져 한 개의 윷이라도 깔판을 벗어날 때는 낙으로 처리하며 한 발도 진행할 수 없고, 그 선수는 또 다시 던질 수 없다.

-윷을 던져 나온 수만큼 발을 가서 상대편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잡을 수 있으며 윷을 한번더 던질 수 있다.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번더 던질 수 있고, 계속 나오면 계속 던질 수 있다.

-윷말 한 마리를 한동이라 하는데, 말은 두동, 석동으로 동무하여 함께 갈 수 있다.(이를 '업는다'라고 한다)

-상대방 말이 여러개를 업고 있을때는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백도는 없고 윷이 서있을 때는 엎어진 것으로 본다.

-말판에서 출구로 가장 빠른 길로 가면된다. (단, 발을 짚어 갈 때는 말이 가는 수와 맞아야 하며, 맞지 않을 때는 발을 들어가야 한다)

-선수 또는 선수의 응원단이 경기진행을 방해할 때는 자동 패자 처리한다.

예)말판을 뒤집는 행위, 윷으로 말을 고의로 맞추는 행위, 음주행위, 다투는 행위, 시간 규칙을 어기는 행위, 심판명령에 불복하는 행위, 고성방가 행위 등

-경기는 말판 고유번호와 대진표 번호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본 대회는 접수대장에 의거, 접수순에 따라 같은 읍·면·동 선수들과 예선전 경기를 하지 않게 대진표를 작성한다.

-경기는 세 동의 말로 단판제로 한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양 팀 모두 패자 처리된다. 예)서로 자기 팀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부석 운영팀에 승패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혹은 승패결과를 고의로 반대로 알리는 경우 등

-모나 윷이 던져서 나오고 난뒤 추가로 던져서 나온 도에서 걸까지는 도나 개나 걸을 먼저 이용하여 발을 가고 후에 모나 윷이 발을 갈 수 있다.(상기 이외에 경기규정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윷놀이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다. 결승전은 관인면 이영근 김상덕 팀과 영중면 전종운 조영기 팀이 만나 판 벌이고 있다. 결과는 관인면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윷놀이 결승전의 열기가 뜨겁다.



▲윷놀이 예선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윷놀이 결승전의 말판과 말이 특이하다



▲말리서 기량을 뽐내는 윷놀이 한판!



▲포천시 최고령 이장(군내면)팀의 윷놀이 솜씨 최고



▲말을 짚어야 이기는 법이죠



▲윷놀이 결승전은 흥미진진하기만 하다.



◀윷놀이 승자의 기쁜 미소속에 밝아오는 포천의 미래가 있다.



▲우리팀이 이겼다. 만세만세다.